



라이너 폰크  
Rainer Funk

## 사회심리 분석-에리히 프롬의 사상적 단초 및 그 현대적 의미

약점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슬퍼하고 스스로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성공·체험·재미·모험·경력 등과 같은 단어들에 중시되는 사회의 구성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체험을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감추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자아체험을 느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된다.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며, 모든 약점과 실패의 경험을 자신과 타인의 의식으로부터 몰아내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어야 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흥미롭고 신선하게 느껴야 하며, 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세계에서 이들을 배제시켜야 한다.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들기 위해서는 약점으로 작용할 체험은 억압되고 배제되며 부인되어야 한다.

이런 유형의 성공 지향적 인간들이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며, 이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감정·행위 등을 지배한다는 사실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정신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는 두 가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회학적 현상으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인간 유형에 스스로를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이런 유형의 인간이 점점 더 매력적이고 지배적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열광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한다. 성공을 거두면서 모든 약점을 몰아내고 부인하는 이런 현상은 단순히 한때의 유행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며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서 삶의 모든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성공 지향적 태도가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비생산적으로 되어 질병이나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런 현상들에 비추어볼 때 인간의 태도 안에 어떤 특정한 열정이나 ‘본능적인’ 지향성이 활동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런 지향성은 구체적인 행동에 선행하여 그것을 이끌어내는 심리적 성향을 형성한다. 인간은 상황에 맞추어 객관적이고 기능적으로만 행동하려 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심리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성향—예를 들면 자신이 항상 성공적이고 싶은 것—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설령 이것이 의식적인 경우에서조차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결국 특정한 감정·생각·지각 내용—예를 들면 열등감·패배의식·무력감—등을

### 30 |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Funk, R., 2003e "Psychoanalyse der Gesellschaft.

Der Ansatz Erich Fromms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Gegenwart (Korean),"

in: R. Funk, H. Johach, and G. Meyer (Eds.), Erich Fromm heute.

Zur Aktualität seines Denkens (Korean), Seoul Younglim Cardinal, Inc., 2003, pp. 29-62.



몰아내거나 심지어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사회적 행동방식을 정신분석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에 대해 좀더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에리히 프롬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에 의한 설명 모델을 배경으로 프로이트의 지식을 사회라는 단위에 적용시켜 어떻게 새로운 정신분석적 설명방식을 끌어들이게 되었는가를 설명했다. 프롬은 정신분석적 설명방식을 통해 인간을 단순한 본능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설명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정신분석이 가능해진다. 이때 정신분석은 한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병들 수 있는가를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마케팅 지향성을 통해 프롬의 사회심리 분석이 현대에도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 정신분석학이란 무엇인가?

정신분석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심리적 성향이 내포되어 있는 인간의 행동방식 및 그 결과를 연구하는 것이다. 모든 정신분석적 접근방식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 및 행위가 본능적 또는 열정적으로 체험되는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이런 성향, 또는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체험이 무의식적이거나 왜곡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신분석에는 어떻게 열정적인 기본성향 또는 부분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 모델이 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행동을 결정하는 심리적 성향을 육체적 본능으로 설명하려 시도했다. 프로이트는 성욕이 인간의 열정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했다. 이 욕구는 성기를 이용한 욕구 충족이 나타나기 이전에 먼저 비성기적 욕구 충족 안에서 구순口脣·항문·음경의 단계로 나타난다고 한다. 1920년 프로이트는 자신의 본능적 욕구에 관한 이론을 수정하여 열정적 성향과 갈등 체험을 삶에 대한 본능과 죽음에 대한 본능 사이의 충돌, 그러니까 삶을 사랑하는 본능적 욕구와, 삶에 적대적인 본능적 욕구 사이의 표현이라고 이해했다. 인간의 성을 강력하게 억압하던 시대와 그 시기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본능이론으로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려는 프로이트의 모델이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프로이트식의 본능 개념이 너무나 협소하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본능은 주변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본능적 행위들은 본능 자체를 통해 내적으로 주어진 목표를 추구하는 본능의 자기 역동성의 결과이다. 그리고 주변세계는 다만 내적 본능의 목표에 대한 지향을 촉진(충족)시키거나 저지(거부 또는 승화)하는 기능만 담당한다.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은 인간의 행위가 열정적 성향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주변세계와 인간 간의 특징적 기능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주변세계가 공동생활 또는 문화 창조의 목적으로 본능적 욕구를 억누르는 한, 주변세계는 제한하고 거부하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화와 사회는 개인의 본능적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긴장과 갈등만을 야기하게 된다. 본능을 포기하라는 사회의 요구와, 본능에 대한 개인의 요구는 서로 화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바로 이 때문에 사회와



개인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분열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개인은 언제나 사회와 대립되어 있다.

설명 모델로서의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은 새로이 형성되어 가는 열정적 기본성향에 대한 제한적인 관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본능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신분석은 세 번째 밀레니엄을 넘은 지금까지도 현대의 인간이 왜 항상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어하고, 또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열정적 성향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지, 본능의 내적 성향에 기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이제부터는 에리히 프롬이 이미 1930년대에 본능 개념을 중심으로 하지 않은 새로운 정신분석적 접근방법을 생각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프롬의 정신분석의 성과와 그 현대성을 마케팅 지향성을 예로 들어 기술하고자 한다.

## 정신분석에 대한 프롬의 새로운 이해

프로이트가 의사로서 자신의 이론을 설명할 때 자연과학적인 사고의 패턴을 이용했던 것과는 달리, 프롬은 애초부터 사회심리적인 문제 제기 방법을 사용했다. 정신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경로를 택한 셈이다. 정통 유태교 환경에서 성장한 프롬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개방적인 시민사회로부터 분명히 구분했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 규정을 차별화한 것이 처음부



터 프롬의 주제였다. 이 주제는 살만 바루흐 라빈코프<sup>1)</sup>의 영향을 받은 프롬의 종교관과 알프레트 베버<sup>2)</sup> 밑에서 수학하여 형성된 사회학적 견해, 유대인의 결속과 유대법의 상관관계에 관한 1922년의 박사학위 논문(유대인들은 무리를 지어 살아갈 뿐 아무런 사회적 제도나 기관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감정, 행위의 공통성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sup>3)</sup>), 정신분석을 이용한 사회심리 분석적 접근 방법, 프로이트와 마르크스의 이론을 종합해 보려는 시도 등에 잘 나타나 있다.<sup>4)</sup>

인간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무엇이 서로의 관계를 가능케 해주는가에 대한 질문은 프롬의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사였다. 이는 그가 자신의 여자친구였다가 나중에 그의 부인이 된 프리다 라이히만 Frieda Reichmann을 통해 1923년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 접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프로이트는 각 개인의 전형적인 행동은 본능적인 열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해했다. 프롬은 이러한 정신분석적 이해방식을 사회라는 단위에 적용했다. 즉, 프롬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 사는 인간들은 그 사고방식·감정·행동에 있어서 모두 공통성을 보이는데, 이는 어떤 전형적인 열정이 이들의 행동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프롬은 처음에는 이러한 인식을 프로이트적 본능이론의 개념들로 표현하고자 했으며, ‘특정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는 모든 사회는 그 사회만의 특별한 “리비도적 구조”를 갖

- 1) Salman Baruch Rabinkow : 유대교 율법에 대한 인본주의적 해석으로 프롬에게 영향을 미친 독일 하이델베르크의 라비.
- 2) Alfred Weber : 1868~1958. 독일의 경제학자, 막스 베버의 동생.
- 3) E. Fromm, 1989b, GA XI, pp.19-126.
- 4) R. Funk, 1978, pp.31-49; 1983, pp.37-45 및 70-81; 1987; 1992 및 1999, pp.50-77.

#### 34 |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Funk, R., 2003e "Psychoanalyse der Gesellschaft.

Der Ansatz Erich Fromms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Gegenwart (Korean),"

in: R. Funk, H. Johach, and G. Meyer (Eds.), Erich Fromm heute.

Zur Aktualität seines Denkens (Korean), Seoul Younglim Cardinal, Inc., 2003, pp. 29-62.

고 있다'고 말했다.<sup>5)</sup> 프롬은 처음부터 사회의 리비도적 구조는 항상 개인의 심리적 단위를 통해서만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했다. 왜냐하면 그에게 —사회학의 주류와는 달리—사회란 '실제로는 개별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추상적 사회가 아닌 이 개별 인간들이야말로 사회학의 연구대상'<sup>6)</sup>이었기 때문이다. 즉, 프롬은 '사회'의 리비도적 구조를 각 개인의 심리의 한 측면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각 개인의 사회적 행동이 열정적 특성을 띠게 되는 원인을 설명한다.

초기에 프롬은 인간이 그들의 공통적인 리비도적 구조를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한 사회의 특별한 본능적 성향)을 '숙명이 본능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sup>7)</sup>라고 파악했다. 이때까지도 그는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을 확신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본능적 성향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특정한 본능의 산물이며, 인간들의 '삶의 숙명', 즉 경제활동과 생산방식·노동조직, 그리고 이런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화의 형식 및 정치적·문화적 조직 등이 이 본능적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신이 새로 발견한 정신분석에 대한 사회심리적 이해에 오래 몰두할수록 프롬은 점점 더 프로이트식의 본능 이해, 즉 환경과 사회는 본능에 단지 작용하기만 한다는 생각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이트는 본능이 추구하는 바의 잠재적 목표는 애초부터 거의 무의식적으로 본능 자체 내부에 담겨져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본능적 특징이 역사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과 특정하게 결합된 성감대가 시대에 따라 주변세계에

5) E. Fromm, 1932a, GA I, p.56.

6) E. Fromm, 1929a, GA I, p.3.

7) E. Fromm, 1930a, GA VI, p.15.



의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장려·억제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롬은 1936년 6월 1일 리투아니아의 사회심리학자인 페르닉Pernik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격구조와 본능구조를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 대한 적응으로 이해하고, 성감대를 그 주요 “원인”으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과제인 것 같다’<sup>8)</sup>고 적었다. 이때부터 본능이론을 확신했던 그가 갑자기 주변세계에 대한 본능구조의 ‘적응’에 대한 이야기만 할 뿐, 더 이상 주변세계의 본능에 대한 ‘영향’은 이야기하지 않게 된 것이다.

프롬은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에서 벗어나 자신의 접근방식을 새로이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6년 가을, 프롬은 프로이트와 자신의 차이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다. 이에 관하여 그는 1936년 12월 18일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의 동료인 카를 아우구스트 비트포겔<sup>9)</sup>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나는 사회적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는 본능을 프로이트의 생각처럼 성적 본능의 승화로 보지 않고 사회적 과정의 산물, 또는 좀더 정확히 말해서 인간이 자신의 본능을 충족시켜야 하는 특정한 정황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오. 이 본능은 원칙적으로 자연적 요인, 즉 본능적인 배고픔이나 갈증, 또는 성욕 등과는 다르오. 이러한 것들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공통적인 반면에 앞의 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산물이며, 생물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의 실제에서 출발하여 이해되어야 하는 것들이오. 심리학이나 사회학의 문제점은 자연적인 요

8) 에리히 프롬 관련 문서 참조

9) Karl August Wittfogel : 1896~ .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난 미국의 중국사회경  
· 제사가中國社會經濟史家.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졸업하고 1925년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에 들어간 뒤, 1933년 나치스 정권에 쫓겨 미국으로 망명했다.



인과 역사적 요인들이 변증법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요. 프로이트는 심리학을 오로지 자연적 요인들을 토대로 설명했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나는 생각하오.<sup>10)</sup>

1937년 프롬은 이 ‘원칙적 논문’을 완성하여 사회조사연구소의 《사회연구지》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이는 막스 호르크하이머<sup>11)</sup>를 비롯한 연구소 동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롬은 이 논문의 내용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이 논문은 프롬이 프로이트의 본능이론을 거부한 이유와, 나아가 새로운 정신분석을 창안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발표되지 못했다.(이 논문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가 1991년 필자에 의해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발견되어 1992년 최초로 발간되었다.)<sup>12)</sup> 그러므로 이 글에서나마 프롬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 조금 언급해 보고자 한다.

프롬은 1930년대 초 요한 야코프 바호오펜<sup>13)</sup>, 로버트 브리폴트<sup>14)</sup>, 루이스 모건<sup>15)</sup>의 모계사회와 부계사회의 차이점에 관한 연구를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인간과 인간의 본능적 성향에 관한 프로이트의 생각이 단지 제한적으로만 유효하다고 생각했다. 이

10) 에리히 프롬 관련 문서 참조.

11) Max Horkheimer : 1895~1973. 독일의 철학자, 사회학자.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지도자로, 1930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사회철학 교수가 되면서 사회조사연구소를 이끌었다.

12) E. Fromm, 1992e [1937], GA XI, pp.129-175.

13) Johann Jakob Bachofen : 1815~87. 스위스의 법학자, 인류학자.

14) Robert Briffault : 1876~1948. 미국의 사상가. 모든 인간 행위는 남성적 가부장제가 아니라 여성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펼쳤다.

15) Lewis H. Morgan : 1818~81. 미국의 인류학자. 그의 저서 《고대사회》는 엥겔스에 의해 인용된 뒤 마르크스주의 사관史觀에 영향을 끼쳤다.



미 1920년대에 프롬은 바덴바덴의 게오르크 그로데크<sup>16)</sup>를 중심으로 한 모임과 접촉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는 산도르 페렌치<sup>17)</sup>와 카렌 호르나이 Karen Horney도 속해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노이로제와 관계된 모든 질병에서 중심역할을 한다는 프로이트의 핵심 주제가 근대 시민적 사고에 기초한 가부장적 이론으로 여겨져서 거부되었다.

프롬은 프로이트에 대한 비판에서 (a) 시민적 성격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가정假定, (b) 가정家庭의 역할에 대한 프로이트의 평가, (c)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sup>18)</sup>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a) 프롬은 프로이트가 인간에 대한 시민적 사고, 즉 구체적인 역사적 진화의 결과물인 한 인간의 존재형태를 자연적으로 주어진 본질로 해석했다고 보았다.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예로 들면서, 이는 ‘모든 민족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콤플렉스가 아니라고’<sup>19)</sup> 단언했다. 또한 인간은 일차적으로 나르시스적 자기애를 지녔으며, 공동생활의 압력 하에서만, 그리고 자신의 나르시스적 욕구를 포기할 수 있을 때에만 타인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발전시킨다는 프로이트의 시민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16) Georg Groddeck : 1866~1934. 독일의 심리학자로, 프로이트와는 견해를 달리 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 프로이트는 자아개념을 그로데크로부터 차용했다.

17) Sándor Ferenczi : 1873~1933. 헝가리의 정신분석학자로, 프로이트의 제자들로 구성된 비엔나학파의 멤버.

18) E. Fromm, 1992e [1937], GA XI, p.139.

19) 앞의 책, p.140.



이에 반하여 실제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능력이 공동의 원천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 능력이 방해받는 곳에서는 타인과 자기 자신 모두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이다.<sup>20)</sup>

프로이트의 여성심리학은 그가 지닌 시민적 사고가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열등감을 느끼고 종종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할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자명한 결과이다. 프로이트는 여성이 해부학적 차원에서부터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성을 질투한다고 가정했는데, 이로써 그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수많은 주장에 또 하나를 덧붙인 셈이 되었다.<sup>21)</sup>

(b) 프로이트는 ‘태어나서 처음 몇 년이 아이들의 성격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발달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삶의 실제’인데, 정작 아이들은 ‘사회적 삶의 실제’와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는 성격발달에 대한 프로이트적인 시각과 모순이 된다. 이에 대해 프롬은 성격발달에 있어서 가정이 갖고 있는 역할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정은 성격발달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의 심리학적 대리자’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22)</sup>

20) 앞의 책, p.143.

21) 앞의 책, p.144.

22) E. Fromm, 1932a, GA I, p.42.



(c)フロムの 핵심적인 비판 대상은 의심할 바 없이 프로이트의 본능 이론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フロム은 자신을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에서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준’<sup>23)</sup> 임상경험과 사회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사유들을 사용했다. 그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본능 개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다.

대부분 본능적으로 고착된 채 자연을 대하는 동물과는 달리 주변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적응은 ‘생물적 시공간이 아닌 “역사적”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적응과정에서 인간은 ‘주변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본능 고착의 완화 또는 제거가 비로소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창조 가능성을 유발한다.’<sup>24)</sup> 따라서 한 인간을 동물과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심리학적으로 구분짓게 하는 것은 ‘역사의 산물로서 발전된 인간 심리구조의 고유함이다. 심리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 기본관계”로부터 일부는 직접적으로, 일부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두려움과 충동이다.’<sup>25)</sup>

フロム이 여기에서 말하는 ‘기본관계’란 현실과의 관계방식이다. 나중에 그는 이에 대하여 심리구조 또는 성격지향성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인간의 행동에 특별한 열정적 방향을 부여하는 기본성향을 뜻한다.フロム은 1937년의 논문에서 이런 기본성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관계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파괴성·사랑·사도마조히즘’<sup>26)</sup>을 꼽았고, 재화 취득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수동적으로 받아들

23) E. Fromm, 1992e [1937], GA XI, p.149.

24) 앞의 책, p.151.

25) 앞의 책, p.152.

26) Sado-Masochism : 타인을 지배하고 고통을 주는 새디즘과 열등감과 무력감으



이는 욕구, 폭력적으로 갈취하려는 욕구, 아끼고 절약하려는 욕구, 그리고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꼽았다.’27)

자연적으로 주어진 ‘생리적 본능’과 ‘역사적으로 사회화 과정 안에서 발전되는 심리적 충동’을 구별함으로써 프롬은 더 이상 인간의 본능 성향에 미치는 주변세계의 영향만을 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심리구조 또한 주변세계에 의해 특징지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 심리구조의 기저에 놓인 물질적 토대를 형성하는 것은 생리학이 아니라, 생리적 욕구가 하나의 계기로 자리잡는 삶의 과정인 것이다.’28)

정신분석 이론을 본능 개념으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프롬은 프로이트가 말했던 본능욕구와 사회 사이의 대립관계를 극복했다. 심리구조를 특징짓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필요조건들이다. 심리적 성향이 본능으로 체험된다 할지라도 이를 본능의 산물, 즉 ‘성적 본능의 직접적 산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주변세계의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한다.’29)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구조는 인간 활동과 삶의 방식의 산물로 보아야지 신체 조직의 반사로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30) 따라서 인간 심리구조의 근본문제는 본능적 욕구의 만족 또는 좌절이 아니라, 현실에

---

로 자기상실에 빠져버리는 마조히즘은 모두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심리 현상으로서, 사도마조히즘은 지배와 복종의 결합으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인 메커니즘이다.

27) 앞의 책, p.152.

28) 앞의 책, p.154.

29) 앞의 책, p.163.

30) 앞의 책, p.173.



대한 인간의 관계방식인 것이다.<sup>31)</sup>

## 사회심리 분석이란 무엇인가?

본능이론을 극복함으로써 프롬은 이미 자신이 유년기에 유대인 교육을 통해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적 인간관과 사회관을 통해 습득했었던 인간 존재의 문제로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언제나 관계적 존재, 즉 사회화를 통해 심리적 발전이 진행되는 존재이며, 인간의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열정적 성향은 이와 같은 관계 경험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프롬은 ‘대상적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sup>32)</sup> 따라서 이와 같은 성향이 개인과 사회 사이의 해결할 수 없는 대립의 결과는 아닌 것이다.

사회와 개인은 서로 ‘대립’되어 있지 않다. 사회는 바로 살아 있는 구체적인 개인들이며, 개인은 오로지 사회화된 개인으로서만 살아갈 수 있다. 인간 개인의 실제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그 개인이 속한 사회 또는 계급의 삶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개인의 삶은 결국 해당 사회의 생산방식, 즉 사회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사회가 생산하고 조직한 방식을 통해 제한된다. 여러 사회 또는 계급의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의 전형적인 성격구조를 만드는데 된다. 각 사회는 생산방식 및 사회·정치적 조직에 의해서 구분될

31) 정신분석에 관한 프롬의 새로운 접근방식 및 미국의 대표적인 정신의학자 해리 설리번 Harry S. Sullivan(1892~1949)의 ‘개인 간 정신분석’ 과의 유사점에 관해서는 R. Funk, 1999, pp.102-117 참조

32) 예를 들면 p.132 및 153.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속한 인간들이—개별적으로는 서로 아주 다름에도 불구하고—나름대로 지닌 전형적인 성격구조를 통해 서로 구분된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성격’이라 부르고자 한다.<sup>33)</sup>

사회의 전형적 성격, 또는 프롬이 1941년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처음으로 말한 사회적 성격이 지칭하는 것은 ‘그 역동성과 비중에 있어서 한 사회의 모든 개인들에게 결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인 지향성이다.<sup>34)</sup> 사회적 성격과 구분되는 것은 ‘개인적 성격’인데, 이는 고유한 인성구조를 형성하는, 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특성의 총체를 일컫는 말이다. 각 개인은 모두 사회적 성격과 개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사회적 성격은 ‘한 집단의 구성원 대부분이 지닌 성격구조의 기본적 핵심’을 의미하고, 개인적 성격은 출생과 인생 경험의 우연한 요인들에 의해 ‘기본적인 핵심이 여러 형태로 변형된 것’을 말한다.<sup>35)</sup>

이러한 개인적 요인들로는 예를 들면 직업, 종교, 부모의 주거 및 재산관계, 형제자매 중에서의 서열, 유년시절의 질병, 가족이 헤어지는 경험 등이 있으며, 체질적 요인(유전적 성향이나 성격 등)도 이에 포함된다. 인간이 공통적인 사회적 성격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면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고, 또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성격구조—예를 들면 항상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를 갖고 있으면서도 극히 상이한 성격적 특성과 행동방식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개인적 성격의 요인들 때문이다.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한다. 예를 들면 유창한 연설,

33) 앞의 책, p.163.

34) E. Fromm, 1992e [1937], GA XI, p.163.

35) E. Fromm, 1941a, GA I, p.379.



자신감에 찬 외모, 튀는 재치, 남을 도와주는 마음, 박력, 세련된 옷차림, 정력, 겸손함 등을 통해서 말이다. 이렇게 행동방식과 성격적 특성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는—위의 예에서 보자면—항상 자신을 잘 보이고 싶어하는 기본성향이다. 이 기본성향이 행동에 구조를 부여하고 성격에 고유한 지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구조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면서 프롬은 의식적으로 성격 개념을 정신분석적 의미로 사용한다. 또한 프롬은 이 개념을 열정적 성향들이나 개별적 성격 특성들의 합으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성격을 ‘인간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방식을 제한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인 충동과 두려움과 태도의 구조’<sup>36)</sup>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행동에 구조를 부여하는 기본성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프롬은 나중에 가서는 성격과 성격구조라는 개념 이외에 이를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성격지향성’이란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경제활동과 공동생활의 필요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슷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들며, 극히 다양한 성격 특성과 행동방식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직·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강한 열정적 ‘기본성향’ 또는 성격지향성 속에 반영된다. 사람들이 왜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며 다른 방식으로는 행동하지 않는가를 이해하려면 이러한 성격지향성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격지향성은 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개인적 행동에 있어서도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심리 분석의 인식 대상은 각 개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성격지향성이다. 이때 각 개인들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

36) E. Fromm, 1992e [1937], GA XI, p.164.





건 하에서 살아가며, 따라서 경제활동과 공동생활의 기본가치와 필요성을 성격지향성의 형태로 내면화시킨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마치 경제적 필요에 근거해서 마땅히 그렇게 행동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갖고 의무를 지닌 듯이 기꺼이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 사회는 병들었는가?

사회심리 분석에 있어서フロムの 새로운 접근방식은 본능적인 것으로 체험되는 심리적 반응들을 인간의 역사적 상황에 근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플로ム은 본능에 기인하는 인간심리 및 기타 심리적 요소의 문화인류학적 다양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심리적 특징은 인간의 본능적 본성이 아니라 관계적 본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현실과의 관계에서 얻어진 경험은—어느 정도는 왜곡되고 굴절된 채—그 심리적 구조, 즉 사회적 성격의 지향성 속에서 반영된다.

물론 이런 심리적 특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심리적 발달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이러한 설명 모델로 설명할 수는 없다. 지향성이 과연 자신과 대상에 대한 내면적 상像의 형성, 대립적 가치의 수용능력, 현실제어, 위기극복, 차별성, 개별성, 감정적 결합능력, 자주적 사고나 인식 및 행동, 사랑 또는 이성에 대한 헌신, 창의력 등과 연결된 심리적 발달 잠재력을 촉진하는가? 아니면, 주변세계에 의해 결정된 지향성이 오히려 이런 발달 잠재력을 억제하는가? 또는 지향성이 발달 잠재력을 굵게 만들어 ‘성장증후군’이 ‘파괴증후군’으로 되어버리고, 그에 따라 성장 잠재력 또한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가?<sup>37)</sup>

프롬은 사회·경제적 요건이 심리적 특징으로 각인되는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격지향성이 심리적 발달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다. 주변세계에 의해 결정된 심리적 지향성이, 인간의 잠재력이 실제 고유능력으로 실현되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이 성격지향성은 생산적이다. 왜냐하면 성격지향성은 인간으로부터 심리적 발달 잠재력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이다. 그 작용이 심리적 발달 잠재력을 억제하거나 끊게 만드는 것을 프롬은 비생산적이라고 표현했다. 여기에서 생산성과 비생산성은 경제적 단위가 아니라 심리적 발달 및 성숙 가능성의 지표를 의미한다. ‘생산성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인간의 능력이다.’<sup>38)</sup> 프롬은 자신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이러한 심리적 발달 잠재력을—관계·초월성·안정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심리적 욕구로 표현한 바 있는데, 이 욕구에 대해서는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성격지향성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 촉진적 또는 성장 억제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했다.

프롬은—현대식으로 말하자면—‘인간 환경학적’ 접근방식에 따라 특정한 주변환경의 조건이, 심리적 성장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접근방식에서 프롬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요건에 대한 적응이 아니라, 생산적 지향성의 문제이다. 건전한 사회란 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성격이 지니고 있는 지향성이 생산적인 것을 말한다. 심리적으로 병든

<sup>37)</sup> E. Fromm, 1964a, GA II, p.238.

<sup>38)</sup> E. Fromm, 1947a, GA II, p.57.



사회는 사회적 성격지향성이 인간의 고유능력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파괴한다. 따라서 한 사회가 병들었는가, 건전한가를 결정짓는 것은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것—즉, 다수의 것—이 아니다. 사회학적 의미에서 ‘정상적인 것’이 심리학적 고찰방식에 따라서는 병든 것이거나 병들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비록 그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고, 따라서 ‘건전한 인간 이성’(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이 그것을 병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해도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롬은 사회적 질병을 사회적 노이로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야기된 결점’<sup>39)</sup>이라고 부른다. 또한 비생산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이 지배적인 경우를 ‘정상성의 병리학 Pathology of normality’<sup>40)</sup>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롬의 개인 및 사회에 대한 정신분석이 현재 주로 적용되고 있는 행동이론에서는 그 입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특히 다수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려는 사회학적 상대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심리학적 행동이론에 대해서도 프롬의 입지는 약하다. 심지어 정신분석에 대한 프롬의 접근방식 자체가 무시되거나 수정주의적이라고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프롬의 접근방식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결정하는 의식적·무의식적 힘에 관련이 있는 모든 심리학적·사회심리학적 행동이론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묻는 것은, 그가 원하는 행동방식을 얻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거나 기능 장애적 행동방식(예를 들면 중독행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쥐

39) E. Fromm, 1995a, GA IV, p.15.

40) 앞의 책, p.13.



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

프롬의 접근방식이 ‘시대정신’ 또는 — 프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 지배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을 설명하는 데 다소 외면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프롬의 접근방식은 특별한 시의성을 갖고 있다. 이는 프롬이 후기 산업사회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작용하는 힘들을 사회심리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에 프롬은 나르시시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을 분석했고<sup>41)</sup>, 죽은 것을 사랑하는 죽음애호증적 성격지향성을 발견했다.<sup>42)</sup> 죽음애호증적 성격지향성이란 생명이 없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모든 것을 매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주요한 성격적 특성은 파괴를 위한 파괴, 생명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에 대한 무관심, 사물 또는 사물처럼 생각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매료,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인 시스템을 모두 분해하고 분석하고 개별 부분들로 해체하려는 욕구 등이다.<sup>43)</sup>

다음에는 프롬의 정신분석이 갖고 있는 의미와 현대성을 또 다른 사회적 성격지향성, 즉 마케팅 지향성을 예로 들어 언급하고자 하는데, 이 지향성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적 공동생활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행동까지도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다.

41) E. Fromm, 1964a, GA II.

42) E. Fromm, 1964a, GA II 및 1973a, GA VII.

43) 라이너 폰크가 1995년에 발표한 개별적인 사회적 성격지향성의 개요 및 서술 참조.



## 오늘날의 사회심리 분석—마케팅 지향성

우리는 모두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현재 진행되는 근본적인 변화의 주인공이자 증인이다. 이런 변화와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판매전략, 즉 마케팅이다. 이는 재화의 생산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명백한 사실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마케팅은 오락산업에서는 물론이고 정치·문화 분야 및 상품화·정보산업·교육·종교·인간관계 등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마케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말이다. 어느 분야에서건 포장·외양·이미지·전시효과·전달방법·교육방법·퍼포먼스·묘사방식·웃차림·연출 등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행하고 이루어내는지,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주장하는 능력, 잘 포장된 상품, 잘 꾸며진 개인적 성품, 의식적으로 꾸며진 이미지, 잘 연출된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도와주고, 가꾸어 주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모든 직종의 종사자들은 고객, 상품, 효과와 효율, 품질관리 등에 신경을 쓰며 자신들의 행위와 서비스를 판매해야 하는 상품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려면 많은 사람들이 시장화와 판매전략을 아주 중요한 성격지향성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이와 같은 ‘본능 목표’가 자신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심리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



는 프롬의 정신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성격지향성이 어떠한 비생산적 효과를 초래했는가, 즉 인간과 사회적 공동생활에 어떠한 병리학적 영향을 미쳤는지도 밝힐 수 있다. 프롬 자신은 현재와 같은 마케팅 지향성으로 가는 주요 발전 단계들을 그의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정신분석과 윤리》 《소유나 존재냐》에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프롬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경제조건과 생산방식의 변화로부터 생겨나는 심리구조의 변화, 즉 성격지향성에 담긴 역동성의 변화를 상세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소외효과에 대한 문제는 자본주의 비판에서 상품의 물신 숭배적 성격에 관해 논했던 카를 마르크스 이후로 계속 토론되고 연구되어 왔다. 프롬은 우선 1941년에 마케팅 지향성 현상을 근대적 인간의 자유에 대한 문제와 연관시켜 타협주의로의 도피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마케팅 지향성이 제공하는 해결책은 ‘간단히 말하자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가 요구하는 인성 모델에 스스로를 완전히 맞추고,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아지며, 다른 사람이 그에게 기대하는 그대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와 세상 사이에 존재했던 불일치는 사라지고 혼자 있다거나 무기력하다는 의식적 두려움도 사라진다.<sup>44)</sup> 여기에서 프롬은 이러한 기본성향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제시하고자 특별히 노력했던 것은 아니다.(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보여준 주된 관심사는 권위주의적 성격의 제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이 이런 성격 유형을 기술하는 중에도 사회에서는 대량생산의 필요조건에 자신을 맞추려는 현상과, 작업과정의 자

44) E. Fromm, 1941a, GA I, p.325.

50 | 에리히 프롬과 현대성

Funk, R., 2003e "Psychoanalyse der Gesellschaft.

Der Ansatz Erich Fromms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Gegenwart (Korean),"

in: R. Funk, H. Johach, and G. Meyer (Eds.), Erich Fromm heute.

Zur Aktualität seines Denkens (Korean), Seoul Younglim Cardinal, Inc., 2003, pp. 29-62.

동화 추세가 현저히 증가되고 있었다.

자동화 또는 컨베이어 벨트의 도움으로 가능케 된 대량생산은 하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똑같이, 하나의 작업과정을 다른 작업과정과 똑같이 보이도록 만든다. 즉, 똑같이 생기기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는 것이다. 좀더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생산방식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적응시키는 타협주의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자동기계처럼 기능하려는 성향을 초래케 한다. 사람들은 동일한 모양에 재미를 느끼는 것과 타협주의적 성향을 거의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이것은 쉽게 관찰되고 있다. 타협주의와 손을 잡음으로써 남과 다른 독특한 자기만의 것이 없어지고, 그리하여 자기만의 생각·감정·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굳이 의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러한 자주적 행위는 사이비 행위로 대체된다. 즉, 사람들은 타협주의적인 역할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생각·감정·의지를 자신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대로 되게끔 모든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원래의 자아는 사이비 자아에 의해 말살되고 만다.’45)

《자유로부터의 도피》가 발간되고 6년 후에 프롬은 그의 저서 《정신분석과 윤리》에서 그의 사회적 성격이론을 펼친다. 여기에서 그는 타협주의적 성격지향성에 대한 일련의 특징들을 주제화하여 이를 ‘마케팅 지향성’이라 이름 붙였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980년까지 프롬의 마케팅 지향성 Marketing orientation 개념은 ‘시장지향성

45) E. Fromm, 1941a, GA I, p.336.



Market orientation'으로 잘못 번역되고 있었다.) 경영학 분야에서 마케팅이란 개념이 언급되기 이전에 프롬이 먼저 도입한 것이 분명한 이 새로운 개념에서 프롬은, 경제적으로 중심적인 요건과 열정적 기본성향을 아주 정확하게 동일시했다. 마케팅은 수요증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점차 경제의 원동력이 되어갔다. 그리고 마케팅 기법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고 나타내려 하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량생산(이는 새로운 기계, 생산기술, 재료, 작업조직의 형태 등이 나타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으로 인해 더 이상 수요에 맞추어 시장이 형성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심해질수록 상품 역시 수요와 공급에 따른 판매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모든 것은 판매 가능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로 집중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상품에 대한 실제 사용 가치로부터는 멀어지고, 대신 판매전략에 점점 더 주목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생산방식이 갖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 요구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동조시킨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성을 판매되어야 할 상품으로 여기게 된다. '인간 스스로가 상품이며 교환가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성격지향성을 나는 마케팅 지향성이라 부른다. 대부분의 성공은 자신을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판매하는가, 자신의 인성을 얼마나 잘 드러내는가, 자신이 얼마나 친절하고 유능하고 적극적이고 믿을 만하고 명예를 존중하는가, 또 자신이 제대로 된 가문·클럽·인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에 좌우되는 것이다.'<sup>46)</sup> 이때 그 저변에는 스스로를 잘 포장하여, 시장성 있고 성공의 기회가 보장된 '주류' 안에서 적극적

46) E. Fromm, 1947a, GA II p.48.



으로 자신의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열정적인 지향성이 깔려 있게 된다.

성격의 마케팅 지향성은 마케팅의 기본성향을 통해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는 일련의 성격 특성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케팅 지향적인 성격 특성들은 시장 경제적 생산방식의 주요 요건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임금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생산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연성Flexibility’이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제적 현실에서 요구되는 것은 유연성과 같은 성격 특성에서 나타난다. 즉, 오늘날의 사람들은 유연성, 변화, 새로운 것, 다른 것, 정해지지 않은 것, 도전 등을 좋아한다. 인간이 지닌 유연성은 시장의 수요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성 능력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지향성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것’은, 프롬에 따르면 오직 ‘태도변화의 능력’뿐이다.<sup>47)</sup>

시장경제적 생산방식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건은 ‘유동성 Mobility’이다. 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도 적용된다. 생산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유동성은 시장경제의 우상이 되었다. 독일 부퍼탈 교통연구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요구르트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재료의 원산지에서부터 그 운송거리는 총 8천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생산품·생산과정·생산자의 유동성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을 보면, 유동성의 욕구가 현대인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의 하나이며 따라서 유동성이 현대인의 중심가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적 인간은 더 이상 한곳에 묶여 있거나 뿌리박

47) E. Fromm, 1947a, GA II, p.53.



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그는 어느 곳이나 있을 수 있고, 동시에 아무 곳에도 없을 수 있다.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운전면허를 박탈당하거나 휘발유 값이 상승하여 자신의 유동성이 제한을 받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세 번째 중요한 요건은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직장 정체성Corporate identity’이다. 이것은 아무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서 깊은 결속의 욕구를 느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일종의 긍정적 소속감과 일에 대한 긍정적 관계를 요구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정서적 결속이 없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고 교환될 수 있으며, 일자리를 얻거나 잃을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직장의 결속력에 오히려 정서적 감정을 지닌 사람, 언제 있을지 모를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부담이 될 뿐이다. 언제라도 결말 지을 수 있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요건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력과 의무와는 별개의 것으로 체험하고 또 추구하려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개인화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대부분 정서적 결속 없이 관계만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경제적 요건은 탈정서화이다. 이는 생산과정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효과와 능률에 대한 강력한 지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생산요소로서의 인간이 지닌 모든 감정·모순·약점 등을 고려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 네 번째 요건은 그에 상응하는 성격 특성, 즉 ‘냉철함Coolness’ 속에 표현되어 나타난다. 어떤

경우든 자신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어떤 감정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 지향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열정적으로 기꺼이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 그는 흥분하지도 않고 두려움을 갖지도 않으며, 무기력함이나 질투, 또는 부러움 등의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아무런 문제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팀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냉철함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이밖에도 시장경제의 생산방식 요건들에 종속된 여러 성격 특성들을 열거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것들로는 예를 들어 효율적 기능과 그에 따른 성격론적 성취의지 등을 들 수 있다. 성격의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영향은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성격지향성을 파악할 때야 비로소 입증될 수 있다. 유연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성격 특성이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으로 작용하게 될지 알 수 없으며, 또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다. 유연성은 관용과 민주주의, 인간애와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연성이란 단어가 마케팅 지향성에 사용되면 이는 판매전략을 의미하게 되며, 또한 역설적이게도 그 단어의 의미와는 달리 어떠한 신념·구속력·특성 등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강한 욕구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노동력 또는 인성을 시장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현상의 정신분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언제나 이러한 성격 특성과 구체적 행동을 결정하는 사회적 ‘성격지향성’인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격지향성의 역동성을 이해해야 하며, 이것이 인간의 발달 잠재력에 미치는 생산적 또는 비생산적 영향을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자아의 손실과 사이버 자아의 형성에 관해 말하면서 그 당시에는 아직 타협주의라고 불렀던 마케팅 지향성의 영향을 부분적으로나마 다루었다. 그리고 《정신분석과 윤리》에서는 마케팅 지향성이 자아체험 및 관계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인간의 고유능력과 그런 능력을 실현시키는 것은 더 이상 각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판단되고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수행하는 역할들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즉, ‘나는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인 것이다. 이렇게 자기존재와 고유능력을 경시함으로 인해 ‘인간의 상호관계도 피상적으로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교환 가능한 물건으로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타인의 고유한 것이나 특별한 것을 파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능력도 없다.’<sup>48)</sup>

프롬은 1950년대에 마케팅 지향성의 비생산적 역동성을 소외의 개념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다.<sup>49)</sup> 마케팅 지향성으로 인해, 인간이 자신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와 고유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면, 이렇게 부인된 인간적인 고유능력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투영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거부된 것은 결국 다른 곳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대답은 금방 찾을 수 있다. 제품, 즉 인간과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물에 인간적 특성과 능력이 부여되는 것이다. 생산적 삶의 수행과 인간의 실제적인 고유능력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 즉 사랑·이성·다정함·신뢰·생동감·활동·기쁨·만족·안전함 등의 요소들이 인간이 만든 제품이

48) E. Fromm, 1947a, GA II, pp.50-51.

49) 이에 대해서는 특히 E. Fromm, 1991e [1953], GA XI, pp.211-266; 1955a, GA IV, pp.88-109 및 1993년에 발표된 라이너 폰크의 논문 참조.



나 판매 대상인 물건에 투영된다. 광고는 이러한 투영과정을 잘 보여준다. 광고의 대상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투영된 생산적 고유능력들이다. 세제를 통해 인간의 깨끗함을, 향수 스프레이를 통해 매력과 생동감을, 보험 상품을 통해 신뢰를, 과자를 통해 즐거움을, 반지를 통해 사랑을, 코냑을 통해 다정함을, 운동화를 통해 체험능력을 살 수 있다. 실제로는 깨끗함·매력·생동감·신뢰·즐거움·사랑·다정함·체험능력 등은 오로지 살아 있는 것, 더 나아가서는 성공한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마케팅 지향성에 있어서 인간은 자기존재와 고유능력을 비워내어, 자신이 소유하고 습득할 수 있는 상품에게 이를 부여한다. 이러한 역동성을 프롬은 1976년 자신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의 존재방식’으로서 상세히 서술했다.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곧 나다.’<sup>50)</sup> 인간의 고유능력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이에 동반되는 존재가 아닌 소유지향성은 일련의 비생산적 영향을 초래한다. 소비주의와 소유 대상에 대한 중독적 의존성, 소유한 것을 빼앗길 때 나타나는 자기상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야기된 반대급부, 즉 안전에 대한 욕구, 내적 공허함과 권태의 결과 오직 외부로부터 감각적 자극을 받아야만 활성화될 수 있게 된 현상, 내면적 수동성을 보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체험세계 등은 이러한 비생산적 영향의 단적인 예이다. 이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영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로 마케팅 지향성을 통해 야기된 정신분열적 현실관계이다. 이 영향에 대해서도 프롬은 언급했지만, 그 전체적 영향관계를 모두 인식하여 서술하지는 못했다. 다음에서는 프롬에 의해 개발된 마케팅 지향성

50) E. Fromm, 1976a, GA II, p.325.



의 개념에 대해 좀더 이야기해 보겠다.

## 마케팅 지향성과 현실연출

마케팅 지향성에 있어서 인간의 고유능력은 상품과 물건에 투영된다. 이제는 인간이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것이 아니라 코냑이 다정다감한 것이 되었다. 이때 광고는 마케팅 지향성에 있어서 흔히 보이는 왜곡된 현실만을 비춘다. 현실을 왜곡하여 받아들여려는 현상은 마케팅 지향성의 근본적이면서도—인간의 현실관계 자체를 공격하기 때문에—비생산적인 영향에 의한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대부분 무의식적이긴 하지만—인간은 자신의 인간 존재를 팔아치움으로써 스스로를 죽은 사물로 체험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활력이 없고 우울하며 불안해하고 내면적으로 공허해하며 지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세계 안에서 인간은 모든 것에서 우선하여 자극을 받아야만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무엇인가를 체험해야만 한다. 이러한 내면적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보상하는 현실왜곡은 일종의 환각이자 환상적인 현실연출이며, 또한 이러한 현실왜곡 안에서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꾸며진 인성이 삶의 조건들을 제공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현실연출을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환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인간은 스스로가 해야 할 모든 활동과 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자신의 능력과 힘을 훈련하고 전개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환상에 빠지고 싶어한다.



2.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부여된, 소유 가능한 것이 가치 있다는 환상에 빠진다. 내가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커피·온천·액션영화·가구, 또는 이런저런 건강식품 등이 나를 활동적으로 만든다.

3. 삶이 양면적이란 사실, 인간의 삶에는 일반적으로 만족과 실망, 기쁨과 고통, 사랑과 증오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회피하고 부정하려는 환상에 빠질 수 있다.

4. 환상적 현실을 통해 무엇보다도 좌절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 자신의 능력과 삶의 제한성과 유한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

5. 마지막으로 환상적인 현실연출은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만족이라는 커다란 장점을 제시한다. 우리는 기다릴 필요도 없고 손해 보지도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지 잠수하는 것뿐이다. 사이버 세계로, 꿈의 세계로, 체험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맥도널드와 디즈니랜드의 세계로, 이국적인 세계나 중세의 세계로 잠수하여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다.

연출된 환상의 현실은 언제라도 실제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인생이라는 '고통의 계곡'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이다. 물론 과거에는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은 사회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리고 일반대중은 천국과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이 성지聖地나 예배의식, 또는 역사나 위대한 인물 등을 통해 대체되는 것에 만족해야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국가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무엇보다도, 특히 마케팅 지향성 덕택에 인간이 만든 환상적 현실은 자신들이 고유능력으로부터 소외당한 사실을 보상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치료제가 되었다.

결국 마케팅 지향성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현실왜곡이 성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려면, 그것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만 아니라 더 이상 왜곡으로 느껴지지 않는 환상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집처럼 편안히 느끼는 새로운 현실로 체험되어야만 한다. 오늘날 경제·문화, 그리고 사회의 마케팅 전략가들이 바로 이러한 현실들(여기에서 복수형은 올바른 사용법이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의 현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에 대한 연출을 집중적으로 연구, 제공하고 있다.

생존을 건 경쟁의 시대에서 시장경제는 더 이상 기존의 시장에서 살아남고 시장을 넓혀나가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은 시장을 만들어 내는 일, 즉 현실을 생산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상품은 당연히 이렇게 해서 생산된 현실의 일부이자 현실을 치장하는 도구로서 사용된다. 성공한 기업들은 자사 상품을 위한 시장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창출하며, 모든 에너지를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 내는 데 쏟아붓고 있다. 구매자 시장은 죽고 이제는 ‘판매자 시장 만세!’의 세상인 된 것이다.

경제·문화·사회적 마케팅 전략이 내거는 마법의 주문은 ‘문화 마케팅’이다. 이는 특정 타깃 그룹이 자신들의 세계와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며, 그 안에 안주하는 삶의 세계들을 연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광고를 보면 그 의미를 더욱 잘 알 수 있다. 오늘날의 성공적인 광고들은 새로운 삶의 세계들을 만들어 내고 그 상품이 그러한 삶의 세계의 일부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광고는 체험의 세계, 아니면 달콤한 꿈의 세계나 환상적인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낸다. 이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갈망





을 현실로 만들어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항상 콜라나 맥주가 함께 있다. 광고주들은 모험이 가득한 청춘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특정 브랜드의 신발을 신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연출된 현실과 시장은 광고심리학자들의 테스트와 경향 파악을 통해 얻어낸 감성적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마케팅이란 환상적인 현실연출을 의미한다.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생각들을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야 하며, 예전에는 단순한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욕구가 이제는 실제적인 필요로 감지되도록 바꾸어 놓아야 한다. 또 성공적인 마케팅이란 감상적인 생각에 불과했던 이런 희망사항들이 실제적인 진짜 감정으로 체험되도록 해주며, 가상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창한 행위가 실제로 자기 자신의 영웅적 행위로 여겨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판매전략으로서 환상적 현실을 연출하는 것은 현실과의 실제적이고도 정서적인 관계의 상실에 따른 보상으로 또 다른 현실, 즉 사이버 현실을 만들어 내는 것과 같다. 물론 이 가상세계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무도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 세계 안에서 광기와 무한성이 체험된다는 점에서는 정신병자의 왜곡된 현실감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가상세계는 정신병자의 왜곡된 현실감각과는 달리, 아직 실제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거나 유일한 현실로 자리잡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세계는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며, 대부분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대체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상적 현실에 몰두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 현실에 머물러야 하는가를 제어할 능력을 아직은 가지고 있다.



프롬은 이를 ‘경미한 만성 정신분열증’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51)</sup> 이것은 또 경계성 병리학 Borderline pathology이라 부를 수도 있다. 사회적 성향으로서의 경계성 병리학은 ‘정상성의 병리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제 산업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경계성 병리학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병들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상현실이 유지되고, 또 이를 통해서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동안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프롬은 사회심리 분석가로서 1977년 한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가장 정상적인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다. 말장난이나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말을 진지하게 하고 있으며 재미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이 병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특정한 인간적 요소들이 아직 심하게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사실을 보여주는 반증이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표본적인 문화 형태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증상은 바로 그와 같은 갈등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sup>52)</sup>

51) E. Fromm, 1968a, GA IV, p.291.

52) 튀빙겐Tübingen의 에리히 프롬 관련 문서 참조.

■ Rainer Funk : 1943년 출생. 에리히 프롬의 사회심리학 및 윤리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프롬의 마지막 조교였으며 프롬의 문헌과 관련된 권리와 사후 문헌 관리자이자 에리히 프롬 전집(1980~81년에는 10권, 1999년에는 12권으로 발간)의 발행인이다. 에리히 프롬 전기와 관련하여 1983년에 독일 로볼트Rowohlt 출판사의 전기 시리즈 중 《에리히 프롬》을 저술하였으며, 1999년 독일출판연구소에서 《에리히 프롬—삶에 대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프롬 전기집 발행하였다. 이 책은 프롬의 생애와 관한 250편이 넘는 미발표 사진과 기록물들을 수록한 상세한 프롬 전기이다. 라이너 폰크는 튀빙겐에 정신과 개인병원을 열고 있는 의사이며, 개인적으로 프롬 문헌실을 운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Fromm, E.: vgl. die Nachweise am Ende des Bandes.
- Funk, R., 1978: *Mut zum Menschen. Erich Fromms Denken und Werk, seine humanistische Religion und Ethik*. Mit einem Nachwort von Erich Fromm,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1983; *Erich Fromm. Mit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owohlt Bildmonographie 322, Reinbek: Rowohlt Taschenbuch Verlag.
- 1987: ‘Von der Jüdischen zur sozialpsychologischen Seelenlehre. Erich Fromms Weg von der einen über die andere Frankfurter Schule’, in: R. Sesterhenn (Hg.), *Das Freie Jüdische Lehrhaus- eine andere Frankfurter Schule*, München und Zürich: Verlag Schnell and Steiner, S. 91-108.
- 1992: ‘Der Humanismus in Leben und Werk von Erich Fromm’,



- in: *Wissenschaft vom Menschen/Science of Man*.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Münster: Lit-Verlag, Band 3 (1992), S. 133-152.
- 1993: ‘Seelische Auswirkungen der entfremdeten Arbeit auf den Menschen’, in: *Arbeit-Entfremdung-Charakter*, Jahrbuch der Internationalen Erich-Fromm-Gesellschaft, Münster und Hamburg: Lit-verlag, Band 4 (1993), S. 94-112.
- 1995: ‘Der Gesellschafts-Charakter: “Mit Lust tun, was die Gesellschaft braucht”’, in: Internationale Erich-Fromm-Gesellschaft (Hg.), *Die Charaktermauer. Zur Psychoanalyse des Gesellschafts-Charakters in Ost- und Westdeutschland. Eine Pilotstudie bei Primarschullehrerinnen und -lehrer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S. 17-73.
- 1999: *Erich Fromm - Liebe zum Leben. Eine Bild-Biographie*, Stuttgart: Deutsche Verlags-Anstalt.



## 부록 : 에리히 프롬 작품집 인용 출처

이 책에서 인용한 에리히 프롬 글의 출처는 전체 12권으로 된 전집(Gesamtausgabe in zwölf Bänden, ed. by Rainer Funk, Stuttgart, München, 1999)이다. 제1권부터 제10권까지는 전체 10권으로 된 에리히 프롬 전집(Erich-Fromm-Gesamtausgabe in zehn Bänden, ed. by Rainer Funk, Stuttgart 1980/81, München 1989)과 쪽수까지 동일하다. 양장본으로 묶여진 제11권과 제12권은 독일출판연구소Deutsche Verlags-Anstalt에서 10권짜리 전집 보충판으로 출간되었다. 최근에 정리된 에리히 프롬 작품 목록은 12권짜리 전집(Erich-Fromm-Gesamtausgabe in zwölf Bänden)의 제10권 373쪽 이하에 나와 있다.

- 1929a: 《정신분석과 사회학*Psychoanalyse und Soziologie*》 GA I, p.3-5.
- 1930a: 《그리스도 교리의 발전. 종교의 사회심리학적 기능에 관한 정신분석적 연구*Die Entwicklung des Christudogmas. Eine psychoanalytische Studie zur sozialpsychologischen Funktion der Religion*》 GA VI, p.11-68.
- 1931b: 《정치와 정신분석학*Politik und Psychoanalyse*》 GA I, p.31-36.

- 1932a: 《분석적 사회심리학의 방법과 과제—정신분석과 역사  
유물론에 대한 논평*Über Methode und Aufgabe einer Analytischen  
Sozialpsychologie. Bemerkungen über Psychoanalyse und historischen  
Materialismus*》 GA I, p.37-57.
- 1932b: 《사회심리학에서 정신분석적 성격학이 차지하는 의미*Die  
psychoanalytische Charakterologie und ihre Bedeutung für die  
Sozialpsychologie*》 GA I, p.59-77.
- 1937a: 《무력감에 관하여*Zum Gefühl der Ohnmacht*》 GA I,  
p.189-206.
- 1941a: 《자유로부터의 도피*Die Furcht vor der Freiheit*》 GA I,  
p.215-392.
- 1947a: 《정신분석과 윤리학—휴머니즘적 성격학을 위한  
초석*Psychoanalyse und Ethik. Bausteine zu einer humanistischen  
Charakterologie*》 GA II, p.1-157.
- 1949c: 《정신분석적 성격론과 문화 이해를 위한 적용*Über  
psychoanalytische Charakterkunde und ihre Anwendung zum Verständnis  
der Kultur*》 GA I, p.207-214.
- 1950a: 《정신분석과 종교*Psychoanalyse und Religion*》 GA VI,  
p.227-292.
- 1951a: 《동화, 신화, 꿈—잊혀진 언어의 이해를 위한 안내*Märchen,  
Mythen, Träume. Eine Einführung in das Verständnis einer vergessenen  
Sprache*》 GA IX, p.161-309.
- 1955a: 《건전한 사회*Wege aus einer kranken Gesellschaft*》 GA IV,  
p.1-254.
- 1956a: 《사랑의 기술*Die Kunst des Liebens*》 GA IX, p.439-518.



- 1960a: 《정신분석과 선불교*Psychoanalyse und Zen-Buddhismus*》 GA VI, p.301-356.
- 1960b: 《인간이 우선이다!—사회주의의 선포와 강령*Den Vorrang hat der Mensch! Ein sozialistisches Manifest und Programm*》 GA V, p.19-41.
- 1960c: 《일방적 군축을 위한 근거들*Gründe für eine einseitige Abrüstung*》 GA V, p.213-224.
- 1961a: 《문제는 사람이다!—외교정책의 환상과 실제에 관한 연구*Es geht um den Menschen! Eine Untersuchung der Tatsachen und Illusionen in der Außenpolitik*》 GA V, p.43-197.
- 1962a: 《환상의 저편—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의미*Jenseits der Illusion. Die Bedeutung von Marx und Freud*》 GA IX, p.39-168.
- 1962b (매코비와 공저): 《민방위대의 문제*Die Frage der Zivilverteidigung*》 GA V, p.225-242.
- 1963d: 《혁명적 성격*Der revolutionäre Charakter*》 GA IX, p.343-353.
- 1964a: 《인간의 마음*Die Seele des Menschen. Ihre Fähigkeit zum Guten und zum Bösen*》 GA II, p.159-268.
- 1966a: 《너희도 신처럼 되리라—구약과 그 전통에 대한 극단적 해석*Ihr werdet sein wie Gott. Eine radikale Interpretation des Alten Testaments und seiner Tradition*》 GA VI, p.83-226.
- 1966h: 《독일은 다시 약진중인가?*Marschiert Deutschland bereits wieder?*》 GA V, p.13-17.
- 1967b: 《예언자와 제사장*Propheten und Priester*》 GA V, p.295-307.
- 1968a: 《희망의 혁명—기술의 인간화를 위하여*Die Revolution der Hoffnung. Für eine Humanisierung der Technik*》 GA IV, p.255-377.

- 1970b (매코비와 공저): 《정신분석과 성격학의 이론과 실제—한 멕시코 마을의 사회적 성격*Psychoanalyse und Charakterologie in Theorie und Praxis. Der Gesellschafts-Charakter eines mexikanischen Dorfes*》 GA III, p.231-540.
- 1970i: 《서머힐의 찬성과 반대*Pro und Contra Summerhill*》 GA IX, p.425-423.
- 1973a: 《인간 파괴성의 해부*Anatomie der menschlichen Destruktivität (The Anatomy of Human Destructiveness)*》 GA VII.
- 1974b: 《삶의 이름으로. 대화 속의 초상화*Im Namen des Lebens. Ein Portrait im Gespräch*》 GA XI, p.609-630.
- 1976a: 《소유냐 존재냐—새로운 사회를 위한 심리적 기초*Haben oder Sein. Die seelischen Grundlagen einer neuen Gesellschaft*》 GA II, p.269-414.
- 1979d: 《에리히 프롬—탈무드에서 프로이트로. 제라르 코뤼와의 인터뷰*Erich Fromm: du Talmud à Freud. Interview mit Gérard Khoury*》 Erich-Fromm-Archive.
- 1980a: 《제3제국 직전의 노동자와 공무원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Arbeiter und Angestellte am Vorabend des Dritten Reiches. Eine sozialpsychologische Untersuchung*》 GA III, p.1-230.
- 1989a [1974-75] : 《소유에서 존재로. 자아경험의 그릇된 길*Vom Haben zum Sein. Wege und Irrwege der Selbsterfahrung*》 GA XII, p.393-483.
- 1989b [1922] : 《유태법—유대인 집단 거주지역의 사회학*Das jüdische Gesetz. Zur Soziologie des Diasporajudentums*》 GA XI, p.19-126.





- 1990n [1965] : 《독일 문제*Die deutsche Frage*》 GA XI, p.493-498.
- 1990t [1948]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협력을 위하여*Für eine Kooperation von Israelis und Palästinensern*》 in: GA XI, p.523-527.
- 1991d [1974] : 《정신분석의 치료적 관점*Therapeutische Aspekte der Psychoanalyse*》 GA XII, p.259-367.
- 1991e [1953] : 《현대인의 정상성의 병리학. 1953년에 행한 4차례의 강의*Die Pathologie der Normalität des heutigen Menschen. Vier Vorlesungen aus dem Jahr 1953*》 GA XI, p.211-266.
- 1992e [1937] : 《사회를 통한 심리적 구조의 결정성—분석적 사회심리학의 방법과 과제*Die Determiniertheit der psychischen Struktur durch die Gesellschaft. Zur Methode und Aufgabe einer Analytischen Sozialpsychologie*》 GA XI, 129-300.
- 1992k [1969] : 《서구사회의 생존기회*Die Überlebenschancen der westlichen Gesellschaft*》 GA XI, p.291-300.
- 1992l [1968] : 《휴머니즘적 대안의 모색*Auf der Suche nach einer humanistischen Alternative*》 GA XI, p.567-577.
- 1992r [1978] : 《독일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논평*Bemerkungen über die Beziehungen zwischen Deutschen und Juden*》 GA XI, p.597-600.
- 1994e [1974/78] : 《에리히 프롬의 미발표 소품들*Unveröffentlichte Fragmente Erich Fromms*》 in: V. Frederking, Durchbruch vom Haben zum Sein. Erich Fromm und die Mystik Meister Eckharts, Paderborn: Ferdinand Schönigh, 1994, p.423-457.